<대본>

(표지)

안녕하세요. 9조 발표를 하게 된 000 입니다.

저희 주제는 실업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다양한 경제 지표 요인 분석입니다.

저희 조원 모두 취업준비생으로서 자연스레 취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지표 요인들이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저희는 소비자 물가지수, 최저임금 그리고 GRDP 일자리 창출 지원율 등 4개의 지표로 분석을 진행해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데이터 소개)

저희의 분석목적은 실업률과 고용률, 물가지수, 최저임금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후 경제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 경제 동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각 요인들을 파악한 후 관련 데이터들을 각 기관의 정부부처 실무자 분들께 보내고 실업률 및 고용률 등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업률과 고용률 동향)

시도별 실업률은 2016년전에는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추세로 가고, 20~23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걸 분석했습니다. 둘 사이는 -0.72의 상관계수로 실업률이 감소할 때 고용률은 증가하는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2015년 및 2016년도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이에 대한 대표 이슈로 메르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률 살펴보면 15년도부터 점차 증가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감소했고, 이후, 청년들의 고용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취업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고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 퍼센트 포인트 기준으로 최근까지 급격하게 수직상승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적 예시로, 러시아의 밀크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에그 인플레이션을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을 비교했을 때, 실업률은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꾸준하게 오오르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는 -0.7964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차트에서 2018년도에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1,000원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당선 당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높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률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둘 사이는 0.9069의 상관계수가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_고용률)

전국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제주도, 경남, 서울,경기 순으로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중, 제주도가 가장 높은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RDP)

제주도는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 되어있고, 건설업 그리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큰 산업군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 되었고, 그 다음 광제조업 그리고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조업 순으로 발달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서비스업이 주된 산업군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비스업 다음으로 광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이 주 산업군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최저임금 변동률)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및 최저임금 변동률 차트를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최저임금의 상승을 나타내고 초록색 라인차트는 물가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둘은 0.9064의 강한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지원금)

붉은색 차트는 실업률, 그리고 파란색 차트는 지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5년부터 16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실업률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둘의 간극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의 상관계수는 아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0.2649의 수치가 나온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부터 1까지 상관관계 범위

[회고]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 달랐던 점을 회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예측했던 결과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소비자물가가 오를 때, 실업률은 낮아졌고, 상반된 결과에 의아함을 품고, 조사를 해보니 ‘필립스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필립스이론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해에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임금상승률이 낮았던 해는 반대로 실업률이 비교적 높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저희 에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최저임금과 고용률 변동 비교 차트에서 분석결과 0.9069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의관계가 없어 유의미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단편적인 데이터로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사이트 도출]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인사이트 도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실업률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고,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물가와 같은 다양한 경제지표들로 미래의 실업률과 고용률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고용률은 GRDP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역의 고용정책은 GRDP를 고려하며 시행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과 실업률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 지원이 실업률과 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